요 9:8-11(실로암 못가의 기적)

흙에다가 침을 뱉어 가지고 이겨서 눈에 발라 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나았다.

예수님이 눈먼 장님을 낫게하기 위해 눈에 진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면 나을 거라 했습니다. 진흙을 발라주던 곳에서 가까운 연못에서 눈을 씻는 게 아니라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하는 실로암에서 씻어야지 눈을 뜰 거라 하였습니다. 장님은 그 말을 믿고 눈이 가려진 채 그 먼 길을 향했고 실로암 못에 눈을 씻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삼수,사수때 가슴에 새기면서 눈이 가려진 거 같이 막막한 이 수험생활을 실로암에 가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 한 장님의 믿음과 같이 버텼습니다.

저의 합격 수기가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가 공부했던 경험들을 적어보겠습니다.

<목차>

1. 시험 준비 과정 - 초수

- 재수

- 삼수

- 사수

2. 공부 방법

- 전공

- 교육과정

- 교육학

- 스터디

3. 기타

- 체력 관리

- 실기 준비

- 실연,면접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4학년도 광주 미술 합격생입니다.

저는 총 4번의 시험을 봤습니다.

초 수 때에는 과락과 별다르지 않을 점수를 받았고, 재수 때에는 광주 1차 컷 점수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 전북 1차 컷보다 12점을 높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종에서 합격하지 못했고, 네 번째 시험인 이번 시험에서 광주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박●● ([redacted], [redacted]8) 22년 광주 최달

최종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1차시험성적	66
2차시험성적	79.07
1차취업가산점	0
2차취업가산점	0
총성적	145.07

과목	점수	가산점	환산점	과락점수	과락여부	결시
교육학	16	0	16	8		
전공과목	50	0	50	32		
실기시험	13.17	0	13.17	0		

합격자 확인 23. 전북최달

박[redacted] ([redacted])

최종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1차시험성적	74
2차시험성적	72.67
1차취업가산점	0
2차취업가산점	0
총성적	146.67

과목	점수	가산점	환산점	과락점수	과락여부	결시
교육학	20	0	20	8		
전공과목	54	0	54	32		
실기시험	20.33	0	20.33	0		

합격조회 24년 광주최합

박[redacted]([redacted])님. 2024학년도 광주광역시 공 ·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모집 · 동시지원 실시법인) [분야] 미술

응시시험 2024학년도 광주광역시 공 ·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모집 · 동시지원 실시법인) [분야] 미술

합격확인 (응시번호 : [redacted])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 시험 준비 과정

* 첫 번째 시험 (대학원재학, 교생실습, 정말 처음 공부함)

-1차 준비

처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교육대학원에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저는 초수 때 공부를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1,2월 강의를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기본적인 구조조차도 잡지 못하고 헤맸습니다. 학원에서 짜준 스터디원들과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 부족함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스터디원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안 되면 몸으로라도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학원에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직강 수업이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첫차를 타고 학원 건물에 제일 먼저 들어와 강의실 불을 켜고 앉아서 책을 봤습니다. 비록 초 수 때에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지만 초 수 때 열정과 간절 함들이 모여 공부하는 습관과 태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2차 준비

졸업준비 핑계와 코로나로 모든 학원이 문을 닫자 2차 실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발 뭐라도 하라고 엉덩이를 발로 차주고 싶습니다.

수업 실연과 면접은 2차 강의만 들었습니다. 면접은 따로 준비를 못 했고 2차 강의를 들었을 때 수업 실연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고 오히려 겁을 먹어서 수업 실연 준비를 하지 않고 회피했습니다.

* 두 번째 시험 (공부 올인)

-1차 준비

두 번째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초수의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위상 미술 1년 패키지를 끊고 1,2월은 인터넷 강의로 듣고 3,4월 수업부터 직강으로 나갔습니다. 초수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초 수 때와 달라진 점은 교육론, 교육과정 영역이 1,2월 강의를 들을 때부터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4월 심화강의를 들을때는 교육론이 재밌어졌습니다. 심화 책에 있는 기출문제를 푸는 게 재밌고, 생각하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심화 책에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학습플래너도 작성하면서 규칙적인 생활과 함께 메타인지를 활성화했습니다. 재수 때에는 복습 스터디를 따로 하지 않고 공부하다 궁금한 게 있거나 의문점이 드는 건 어떤 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지 스스로 먼저 파악하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직강에 나갔을 때 주위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제가 찾은 답이 맞는 것인지 토의를 한 후에 장지연 선생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맥락을 파악하고 배운 내용끼리 연결

짓는 훈련을 한 거 같습니다. 초 수 땐 점수가 바닥이었다면 재수때는 직강기준 20등 안에 들기 시작하면서 공부하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재수 때는 11월 시험 전날에 코로나접촉자로 격리 문자가 와서 시험 보는 날 새벽까지 교육청과 보건소 연락을 기다리다 시험날에도 교실에서 시험을 못 보고 강당에서 혼자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래도 광주 1차 컷 (66점)으로 간신히 합격했었습니다.

-2차 준비

저는 초수때 점수가 과락 직전이었었어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강의도 제대로 듣지 않았고, 실기학원만 의무감으로 다녔었습니다. 사실 1차 준비에만 급했었어서 제가 시험 보는 지역이 2차 실기가 어떤 과목인지, 시험 시간이 얼만지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1차 지역을 광주로 적었었습니다... 이때도 다시 돌아간다면 엉덩이를 발로 차주고 싶습니다.

1차 발표날에 서울에서 본가인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서야 결과확인을 했는데 1차 합격이었습니다. 처음 든 생각은 큰일났다였습니다. 당연히 떨어질 줄 알고 발표전까지 열심히 2차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에 후회가 밀려오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실기를 준비하고 실연과 면접을 준비했지만 그렇게 기회를 날렸었습니다.... 정말 매 순간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 세 번째 시험 (공부 올인, 평달 실기학원)

- 1차 준비

최종 탈락 후 바로 다음 주부터 스터디카페를 끊고 다시 아침 6시부터 착석을 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었던 1차 점수와 2차 실기임을 파악하고 평달에 실기학원에 다녔습니다. 삼수 때에는 3,4월 심화 강의와 5,6월 강의를 인강으로 들었습니다. 인강 빠른 배속으로 듣고 혼자서 정리하는 시간을 더 가졌습니다. 그리고 재수 때와는 다르게 복습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7,8월부터는 직강으로 전환하여 문제를 풀고 강의 듣고 대표첨삭과 질문시간까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삼수 때에는 위상 미술만 수강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서양미술사영역)을 채울 수 있는 강의를 찾아 수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부터 떴을 때 제가 가고 싶던 광주 지역이 티오가 없어서 큰 좌절로 다가왔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가고 싶은 곳도 없어서 광주와 가까운 전북지역을 지원했습니다. 이 때부터 약간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같이 공부하던 분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버텼던 거 같습니다. 9,10월에는 모든 강의를 직강으로 나가고 수업 끝나고 질문하는 시간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질문하는 시간에서 몰랐던 부분을 다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컷보다 높은 점수(컷+12)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 2차 준비

1차 시험이 끝나고 저는 따로 채점은 하지 않고 바로 2차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2차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를 찾아보자면 제가 입시 미술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완성하지 못하고 디테일에만 신경 쓰느라 미완성은 평가제외라는 걸 간과했습니다. 그 당시 생각해보면 못 그린 그림보다 잘 그리지만 덜 그린 그림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던 거 같습니다. ㅎ ㅏ.ㅂ ㅏ보

* 네 번째 시험 (1학기 시간강사, 평달 실기 주3-4회)

- 1차 준비

두 번의 최탈과 함께 다시는 임용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너무나 아깝고 지금 손을 놓는다면 앞으로 저의 인생에서 이 시험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 언젠가는 다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다시 임용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난 3년간 맘 편하게 쉬어본 적도 없을뿐더러 쉬지 않고 계속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처음 시험을 준비할 때와는 체력과 열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학기 동안에는 본가인 광주로 내려와서 생활(요양)하였습니다. 중학교 시간강사 일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평일과 주말에 실기학원을 다녔습니다. 동시에 위상 미술 1,2월 기본강의와 3,4월 심화강의, 5,6월 교과서분석, 문제 풀의 강의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앉아서 책을 집중해서 보지를 못해서 인강을 통해서라도 이론내용을 계속 회독했었습니다. 5,6월 문풀때에는 복습스터디와 회독 스터디를 함께 했습니다. 2학기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9,10월에는 위상 미술 직강을 나와 문제풀이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험 때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가벼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교생실습 때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보지 못했었는데 시간강사 일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처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꿈꿔 왔던 모습과 정말 달랐습니다. 뉴스에서만 봐왔던 모습과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사라는 직업에 굳이 목멜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고 이전보다 조금은 더 편하게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강 모의고사를 보면 1,2등으로 점수와 등수는 잘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이전부터 해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때 느낀 건 정말 열심히 해둔 건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쌓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광주 티오 1명이 떴을 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저의 자리라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제가 전북을 썼을 때 1차에서 나쁘지 않은 점수였는데 떨어진 이유는 지금 이 광주 1명 자리를 가기 위해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분명 그 결과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어주세요ㅜ)

- 2차 준비

1차 시험에서 정말 멍청한 큰 실수를 했습니다... OMR답안을 밀려서 서술했습니다. 2문제를 이미 밀려서 서술하였고 답안지를 교체할만한 시간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빽빽하게 답들을 적어 두 줄을 그어도 답안을 서술할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펜이 손에 안잡혔습니다. A형을 그렇게 풀고 B형에 서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다 빠지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붙잡고 속으론 울고 기도하면서 서술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심장이 아픕니다. **<u>혹시나 모르는 답을 넘기고 문제를 풀 때는 답안지에도 꼭 표시하고 문제를 풀어주세요</u>**.... 여튼 1차 시험에서 큰 실수뿐만 아니라 자질구레한 실수들까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들을 하고 와서는 3일 밤낮을 울었던 거 같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녔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감과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2차 준비는 했습니다. 이 점은 칭찬할만한 거 같습니다. 2차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했기에 모든 것을 좌절하면서도 동시에 또 2차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2차 준비는 정말 몸과 마음이 힘든 과정인 거 같습니다.

4수 때는 이전과 다르게 제가 시험을 보는 지역에서 준비하였습니다. 그전까지는 노량진이나 홍대에 있는 실기학원에 다녔지만 응시하는 지역에서 준비하는 게 더 맞는 거 같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광주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있을 것만 면접은 3수때 같이 준비하던 스터디원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실기 가는 시간 외에 오전과 주말 종일을 쉬지 않고 면접과 실연을 준비했더니 시간은 빠르게 지났던 거 같습니다.

저는 1차에서 아주 큰 실수를 했기에 기대조차 하지 않고 1차 결과 확인도 안 하고 있다가 교육청에서 빨리 서류 제출하라고 전화 와서 합격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차가 붙었다는걸 알게 된 이후로 정말 180도 사람이 변했습니다. 저에게 온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웃으면서 정말 즐겁고 재밌게 2차 준비를 했습니다. 실기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면접과 실연준비는 주일 밤과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꾸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 이후에 실연과 면접에 집중했습니다.

2. 공부 방법

저는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서 저의 방법이 효과적이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절대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제가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강의를 어떻게 들었는지만 참고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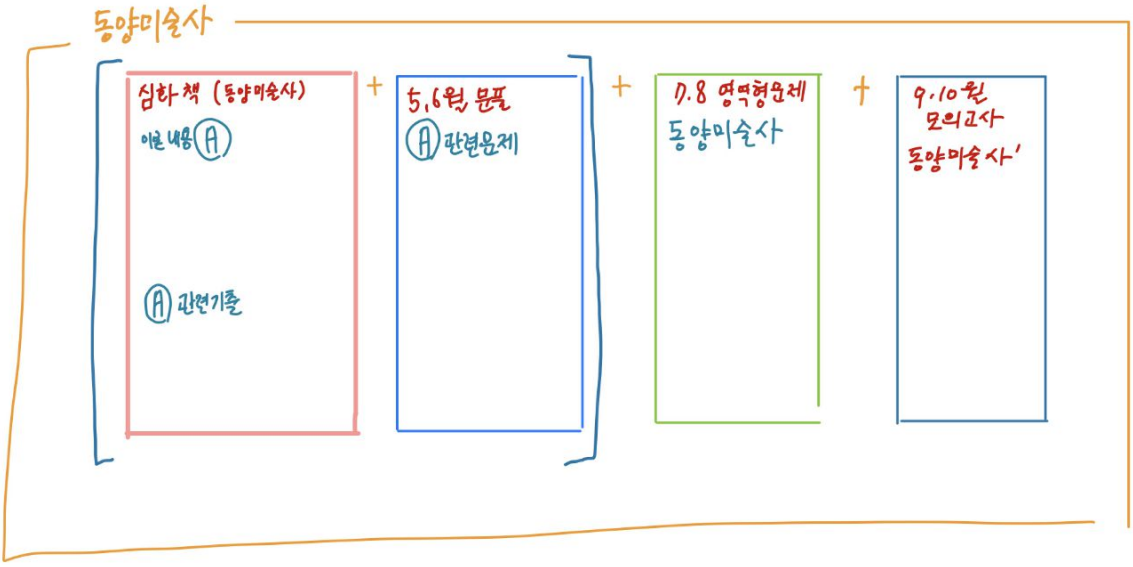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이론서의 회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화서와 기본서를 번갈아가며 회독을 계속 돌렸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회독을 하다 보면서 신기한 건 볼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발견하면서 화가 나면서 동시에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해기반 암기로 공부했습니다. 이해가 된 후에야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머릿속에 내용이 남아있었습니다. 회독할 때 눈에 바르면서 속도를 빠르게 읽기도 했지만 그 전에 손으로 써가면서 텍스트를 이해해가며 회독을 했습니다. 자주 잊거나 인출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은 내용은 수첩이나 포스트잇에 매직으로 크게 적어 수시로 눈에 익혔습니다.

*전공

재수 때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위상 심화 책에 했습니다.// 삼수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따로 단권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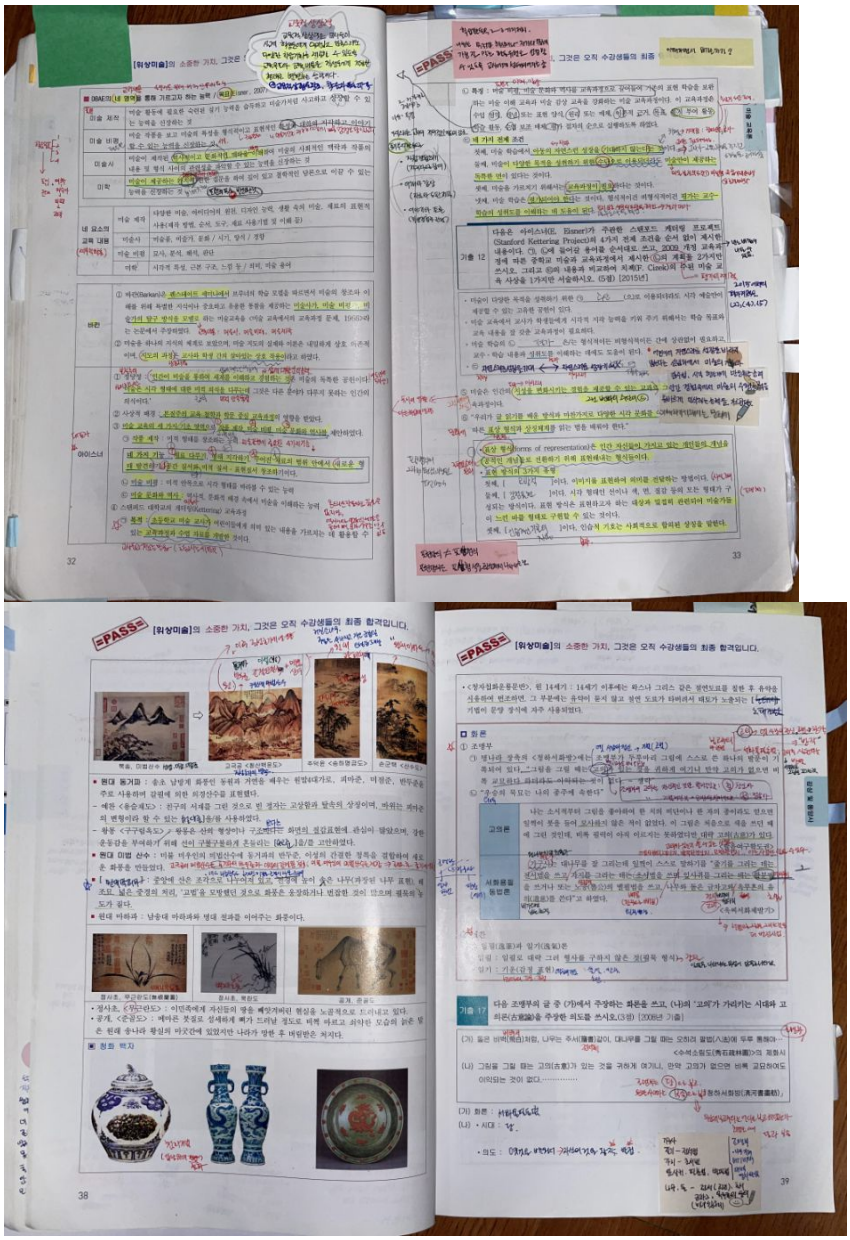
동양미술사를 예로 들면 심화 책에 이론과 관련기출이 있는 부분에 내용과 관련한 5,6월 문제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양미술사 맨 뒷장에는 7,8월 동양미술 영역과 교과서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9,10월 문제 풀이 때 동 미사 영역만 따로 추려 교재 맨 뒤에 엮어서 단권화 하였습니다. 재수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이론과 문제를 같이 보면서 이론이 문제로 나올 때 어떠한 형식으로 나오는지 볼 수 있었고, 있는 것이 다뤄주는 내용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습니다.



삼수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책으로 다시 공부했었습니다. 자료를 편집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따로 있는 것이 하지 않고 기본서, 심화서, 있는 것이 전부 들고 회독을 했었습니다. 다만 심화책을 중심으로 하여 기본서나 문풀에서 다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따로 중요한 건 정리하여 회독할 때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료를 추가하지 않고 보다 보니 회독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었고 구조를 잡거나 맥락을 잡으면서 읽는데 더 수월했습니다.

강의 중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전부 빨간색 펜으로 모두 받아 적었습니다. (문제를 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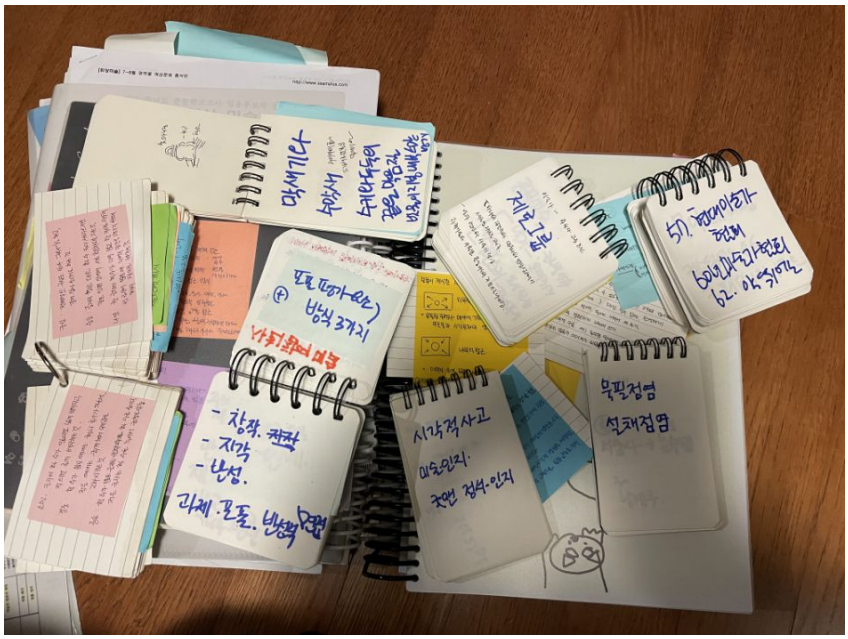
때 언제 이런 걸 알려주셨지?하는 부분들은 이미 이론 시간에 설명해주셔서 빨간 펜으로 다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내용은 중요한 건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론을 회독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꼭 체크를 해 다음 시간까지 해결하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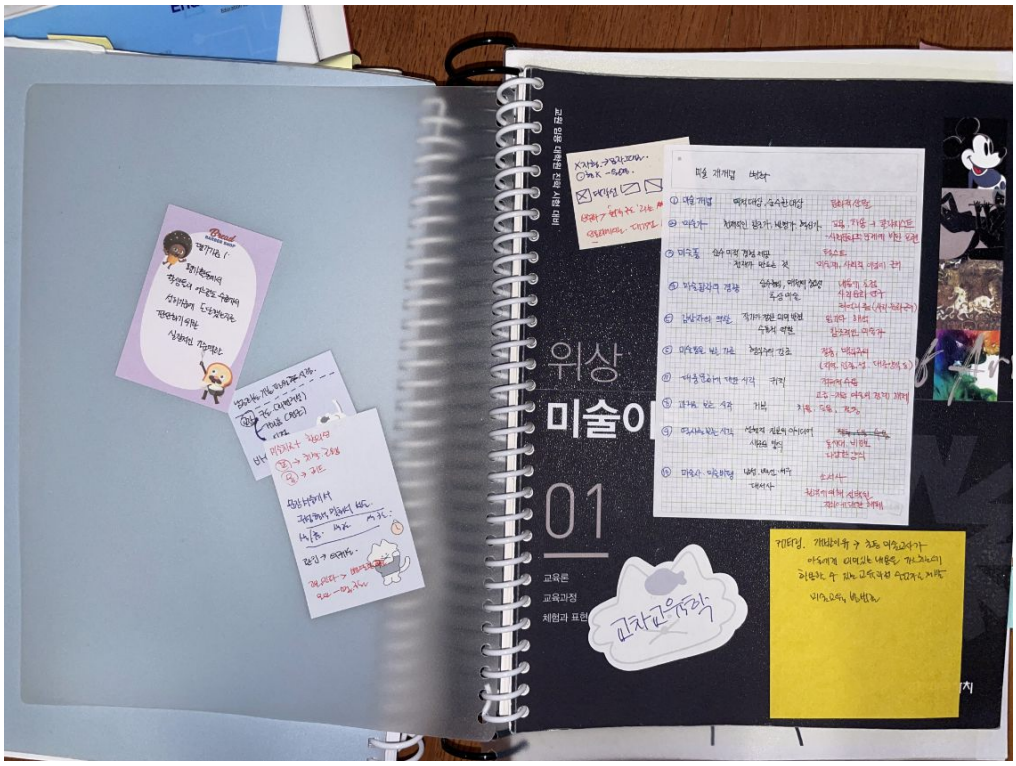


저는 수첩과 포스트잇을 정말 많이 활용했습니다. 회독하면서 크게 적어둔 것들을 회독 후 다시 수첩을 넘기면서 복습하고 이동하면서 애착 노트처럼 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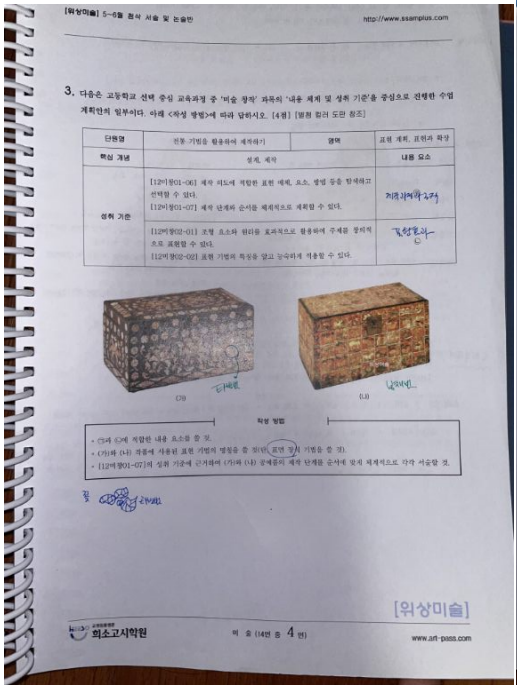
책을 보다가 눈에 띄는 단어나 내용은 꼭 적어서 붙여두곤 했는데 정말 그런 애들이 시험에

단답형으로 많이 나와서 신기하면서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5,6월 문제풀이에서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문제 풀이 순서대로 문제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수, 삼수 때 매일 아침마다 5,6월 문제 한 주차씩을 보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취지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익혔습니다. 취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론 내용을 구조화하고 정리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또한, 5,6월 문제풀이와 관련한 이론을 기본서에 찾아 표시함과 동시에 문제자료에도 이론내용을 정리해서 문제를 보면서 이론을 같이 익혔습니다.



[위상미술] 5~6월 최서 서술 및 논술반 http://www.ssamplus.com

3. 다음은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중 '미술 창작' 과목의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한 수업 계획안의 일부이다. 아래 <작성 방법>에 따라 답하시오. [4점] [밑줄 친 단만 참조]

단원명	전통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하기	영역	표현 계획, 표현과 작상
핵심 개념	설계, 제작		내용 요소
성취 기준	[12미창01-06] 제작 의도에 적합한 표현 계획, 요소, 방법 등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다. [12미창01-07] 제작 단계와 순서를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지각과 예술 스키마
	[12미창02-01] 조형 요소와 원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12미창02-02] 표현 기법의 특징을 알고 능숙하게 적용할 수 있다.		조형요소

(가) 드라보르 (나) 나전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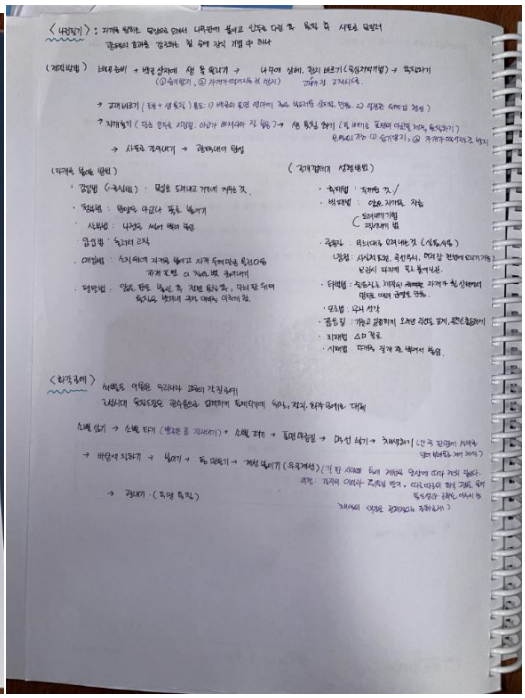
작성 방법

- 5과 6에 적합한 내용 요소를 쓸 것.
- (가)와 (나) 작품에 사용된 표현 기법의 명칭을 쓸 것(1개). 표현 기법을 쓸 것.
- [12미창01-07]의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가)와 (나) 공예품이 제작 단계를 순서대로 맞지 않게 제시되도록 각각 서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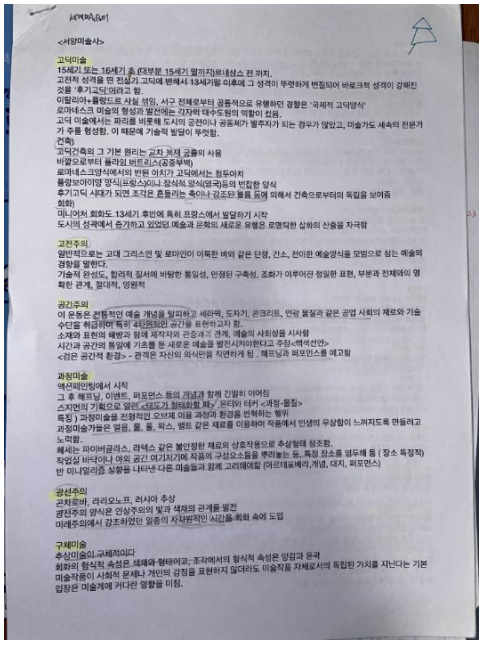
답 드라보르 나전칠기

[위상미술]

의소고시학원 미 술 (14면 중 4 면) www.art-pass.com



7,8월에는 회독에 더 집중했습니다. 삼수 때에는 용어사전의 내용을 보고 싶어 따로 강의를 신청해서 강의를 듣고 혼자 자료를 편집하여 아침에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용어사전내용을 보면서 분절돼있던 서양미술이나 디자인사 내용을 통합여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피상적으로 용어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배경과 맥락들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지식이 연결돼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용어사전에서 단어와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게 머리아프면서도 재밌었습니다.



서양미술사

<서양미술사>

고딕미술
15세기 또는 16세기 초 (대부분 15세기 말까지)르네상스 전 까지,
고전적 성격을 띤 전성기 고딕에 반해서 13세기말 이후에 그 성격이 뚜렷하게 변질되어 바로크적 성격이 강해진 것을 '후기고딕'이라고 함.
이탈리아+플랑드르 사실 성향, 서구 전체로부터 공통적으로 유행하던 경향은 '국제적 고딕양식'
로마네스크 미술의 형성과 발전에는 각자의 대수도원의 역할이 컸음.
고딕 미술에서는 파리를 비롯해 도시의 공전이나 공동체가 발주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미술가도 세속의 전문가가 주를 형성함. 이 때문에 기술적 발달이 뚜렷함.
건축
고딕건축의 그 기본 원리는 교차 궁륭 공륭의 사용
버팔으로부터 플라잉 버트리스(공중부벽)
로마네스크양식에서의 반원 아치가 고딕에서는 첨두아치
플랑보이양 양식(프랑스)이나 장식적 양식(영국)등의 변칙한 양식
후기고딕 시대가 되면 조각은 흔들리는 촉이나 길조된 볼륨 등에 의해서 건축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여줌
회화
미니어처 회화도 13세기 후반에 특히 프랑스에서 발달하기 시작
도시의 성곽에서 솟기하고 있었던 예술과 문학의 새로운 유행은 로맨틱한 심화의 산출을 자극함

고전주의
일반적으로는 고대 그리스인 및 로마인이 이룩한 바와 같은 단정, 간소, 전이한 예술양식을 모범으로 삼는 예술의 경향을 말한다.
기술적 완성도, 합리적 질서에 바탕한 통일성, 안정된 구축성, 조화가 이루어진 정일한 표현, 부분과 전체와의 명확한 관계, 절대적, 영원적

공간주의
이 운동은 전통적인 예술 개념을 탈피하고 세라믹, 도자기, 콘크리트, 안료 물질과 같은 공업 사회의 재료와 기술 수단을 최급하며 특히 4차원의 공간을 표현하고자 함.
소재와 표현의 해방과 함께 제작자와 관중과의 관계, 예술의 사회성을 시사함
시간과 공간의 통일에 기초를 둔 새로운 예술을 발전시키려한다고 주장<백색선언>
<검은 공간적 환경> - 관객은 자신의 의식만을 직면하게 됨. 해프닝과 퍼포먼스를 예고함

과정미술
액션페인팅에서 시작
그 후 해프닝, 이벤트, 퍼포먼스 등의 개념과 함께 긴밀히 이어짐
스지면의 기획으로 얻던 <태도가 형태화할 뿐>/ 뒤티와 타쉬 <과정-물질>
특징) 과정미술을 전형적인 오브제 이룰 과정과 환경을 변혁하는 행위
과정미술가들은 얼음, 물, 돌, 박스, 벨트 같은 재료를 이용해야 작품에서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지도록 만들려고 노력함.
예시는 파이버글라스, 라텍스 같은 불안정한 재료의 상호작용으로 추상형태 창조함.
작업실 바닥이나 야외 공간 여기저기에 작품의 구성요소들을 뿌려놓는 등, 특정 장소를 점도해 둠 (장소 특정적)
반 미니멀리즘 성향을 나타낸 다른 미술들과 함께 그리고해야함 (아르테포제라,개념, 대지, 퍼포먼스)

광선주의
곤차로바, 라리오노프, 러시아 추상
광선주의 양식은 인상주의의 빛과 색채의 관계를 발전
미래주의에서 강조하던 물중의 시차원적인 시간을 회화 속에 도입

구체미술
추상미술이 구체적이다
회화의 형식적 속성은 색채와 형태이고; 조각에서의 형식적 속성은 양감과 윤곽
미술작품이 사회적 문제나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미술작품 자체로서의 독립된 가치를 지닌다는 기본 입장은 미술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9,10월에는 더 빠른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하루에 한 영역씩 회독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책을 보는 건지 책이 나를 보는 건지 싶은 날들이 많았지만 힘든 날은 힘든 날대로 잘되는 날은 잘되는 날대로 이 시기에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서 매일매일 소름이 돋았던 것 같습니다.

11월에는 파이널 강의와 자료들이 넘쳐났지만, 그 자료들을 보면서 동시에 회독했습니다.위상미술에서 나눠준 파이널 자료들은 이론 내용이었기 때문에 강의를 보면서 정리하며 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 교육과정

회독 다음으로 중요한 건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기간 매일 아침 1~2시간은 교육과정을 무조건 봤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전체를 다 암기했고(재수와 삼수) 22개정에서는 중학교 전체를 보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교육과정을 외우려 했지만 외우려 내용을 보다 보면 기출에서 나온 내용이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수 때까지는 일단 외우자는 마음이 컸지만 삼수 때부터는 교육과정 자체를 이해하고자 공부하고 암기보다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관련한 이론들을 연결지어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가며 공부를 하니깐 교육과정 보는 게 외운다는 건 힘들었지만 볼 때마다 재밌었던 영역이었습니다. 22개정을 볼 때에는 교육학과 교육과정, 미술교육론을 함께 두고 봤었습니다.

* 교육학

재수 때에는 교육학 또한 3,4월 강의부터 9,10월까지 모든 수업을 직강으로 나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삼수 때에는 3,4월 이론 강의를 듣고 9,10월 문제풀이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수 때에는 9월부터 교육학 강의를 들으며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9,10월 전까지는 교육학은 수업이 있는 날이나 강의를 듣는 날에만 강의를 듣고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복습도 30분 안으로 끝냈었습니다. 9,10월에는 매일 아침 한 영역씩 한 시간 이내로 기본서를 활용하여 회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학을 정말 좋아해서 더 보고 싶었지만, 전공이 더욱 더 중요하기 때문에 9,10월에만 더욱 집중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

저는 3수와 4수 때 스터디를 정말 많이 했던 거 같습니다. 혼자서는 더는 힘이 안 나서 옆에서 함께 으쌰으쌰 해주면서 버텼습니다.

초 수 때에는 직강에서 정해주는 사람들과 스터디를 했습니다. 처음, 1,2월에서는 다들 열심히

하자 하는 분위기였으나 점차 사람들이 한 두 명씩 사라지더니 저 포함 3명으로 끝났습니다.

재수 때에는 따로 스터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초 수 때 알게 된 스터디쌤과 기상 겸 교육과정스터디를 했습니다. 아침 7시까지 만나서 매일 교육과정을 암기 인출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3수와 4수 때에는

초등임용을 준비하는 친구와 생활스터디를 하고 이전에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과 생활스터디 뿐 아니라 복습, 회독, 퀴즈,등 모든 스터디를 함께 했습니다.

3수 때에는 5,6월 문제 풀이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번갈아 가며 한 문제씩 풀이하면서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회독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이론 책을 한 시간 동안 읽으면서 공부하기 싫은 시간에 강제성을 부여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4수때는 밤 10시가 되면 문제 풀이 복습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또 9,10월이 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 때 스터디로 같이 회독을 돌려 꾸역꾸역 억지로라도 회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독하면서 제가 새로 알게 된 거나 같이 보면 좋을 거 같은 내용이 있으면 스터디 쌤들에게 깜짝 퀴즈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퀴즈를 주고받다 보면 지식이 명확해져서 좋았습니다.

3. 체력 관리

저는 원래 강철 체력이었지만 앉아만 있으니깐 고철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몸이 힘드니 멘탈도 흔들리고 공부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3수때부터는 하루에 1시간씩 주 3회 이상은 꼭 운동을 해줬습니다. 운동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해결했습니다. 집에 갈 때에는 따릉이를 타고 갔는데 점점 시간 단축이 되면서 체력이 느는 것을 느끼며 공부하면서 느끼지 못한 유능 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공부를 계속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하루 한 시간 햇빛 보면서 바람 쐬면서 가벼운 산책이라도 해주세요.

4. 기타

- 4번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위상 미술을 선택한 이유

계속해서 위상 미술을 선택했던 이유로 첫 번째는 효과적인 반복 학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로운 강의나 책을 보기에는 이미 짜인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부하는 스타일을 바꾸며 맞춰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하기 싫어 위상 미술을 계속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위상 미술에서 다루는 이론의 양이 적정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서와 심화서를 바탕으로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양이 아니었고 또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론수업에서 다뤄주지 않은 부분들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고 또 이를

반복해서 수강하며 기본이론내용을 단단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 실기 준비

실기학원은 이전에는 노량진에 있는 임용미술학원을 다녔었고, 이번 24년도를 대비할 때에는 광주 에이맥스를 다녔습니다.

실기 준비는 가능하다면 응시지역에서 준비하기를 추천합니다. 응시지역 대형 입시학원으로 가서 그 지역 다른 응시생들 그림도 확인하며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확인하고 메꾸기를 바랍니다. 저는 입시를 처음부터 한국화로 시작했었어서 소묘에서의 명암과 빛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또한, 손이 무척이나 느려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자신이 실기가 부족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평달부터 2차 준비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광주 실기는 인체소묘 3절 1시간 30분과 전공 선택으로 4시간 시험을 진행합니다. 전공 시험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전공보다는 소묘에서 많은 변별을 주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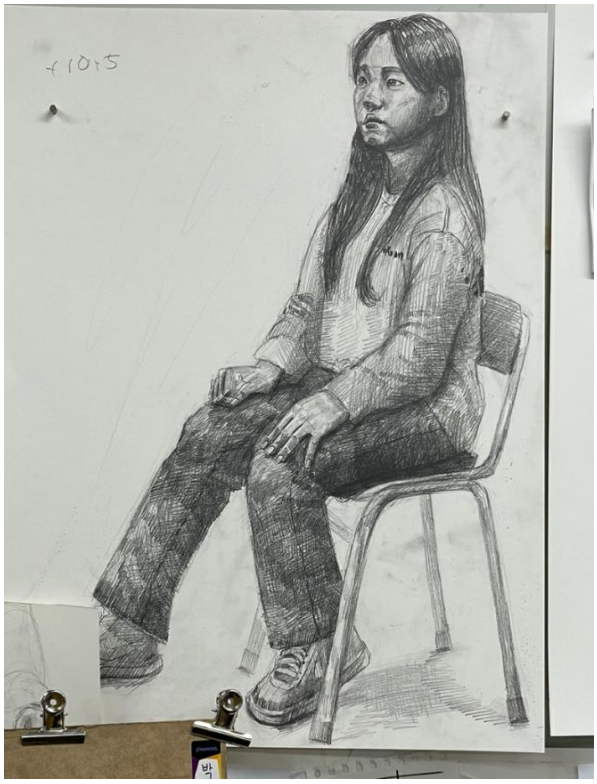
임용실기시험도 결국엔 입시시험임을 잊지 마세요. 저는 원래부터 입시미술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이라 실기에서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실기에서도 꾸준하게 해왔던 것들이 어디 사라진 게 아니라 저의 실력으로 남았다는 걸 이번 실기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전북을 준비할 때는 그림을 완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잘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실패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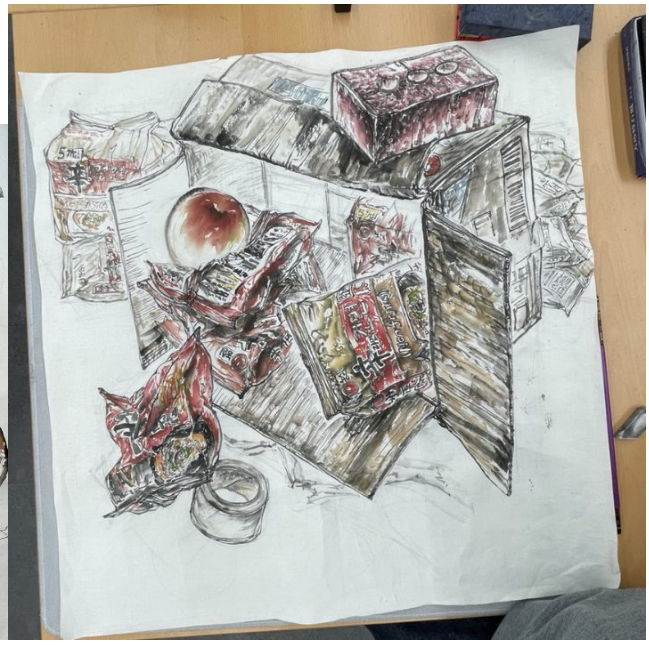
4수 때 2차 준비할 때는 혼자서 기준을 잡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1차 합격 발표 전까지

그림을 그릴 때는 시험시간인 1시간 30분보다 2배 많은 3시간 동안 그림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3시간으로 목표하고 1시간씩 정도 추가로 정리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기 시험을 보기 4일 전부터 시험을 봤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일단 완성만 하는 게 목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래 그림은 1시간 30분으로 시험을 보고, 추가 10분으로 정리한 그림입니다. 또 광주는 인체 모델이 나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사진을 보면서 그릴 때에는 비례나 형태에 문제가 없었는데 모델을 보면서 연습할 때는 비례형태가 흔들려서 어려웠으나 학원에서 계속해서 모델로 시험을 보게 해서 시험 직전에는 다시 교정되었습니다.



전공은 실기시험 일주일 전쯤부터 손 풀기 위해서 중간에 한 타임씩 전공실에 가서 혼자서 그림만 그리고 왔었습니다. 오히려 전공에서는 빨리 그림을 그려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전공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려 했습니다. 4시간 동안 4시간짜리 그림을 그리고 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 전하고 싶은 말

이 시험은 정말 알 수가 없는 시험인 거 같습니다. 내가 잘한다 하여 합격이 되는 거도 아니고 내가 못한다 한들 합격을 못하는 것도 아닌 시험 같습니다. 일 년을 더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된 시험도 아니고 최종합격이 아니면 그동안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정답도 모르고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게 없는 잔인한 시험 같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달려나가는데 혼자서만 멈춰서 있는 기분은 참 씁쓸했고 자책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의식적으로 자신을 탓하려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대신 지금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세뇌시키면서 최대한 멘탈관리를 했었습니다. 합격 수기를 쓰기 전에는 제 사례는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리하고 보니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요약해 보자면

1.1년 시험이 끝나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지만, 열심히 해 온 1년, 그 이상들은 분명히 합격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나의 노력과 고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는 점이 무척이나 억울하면서도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과 고통은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형식으로라도 저에게 도움이 될 거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당장 눈앞의 결과가 절망적이더라도 그 결과가 이후엔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작년 전북에서 최탈한게 이번에 광주 붙으려고 잘한다 하여 생각하며 올해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당장은 너무 힘든 결과가 있더라도 미래에서 생각해보면 이 결과가 오히려 다행이었을 결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3.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꼭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드시고 정신적으로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